

보도시점 2026. 01. 28.(수) 11:00
< 01.29.(목) 조간 >

배포 2026. 01.28.(수)

산업부, 국민주권정부「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 제2의 산업 대도약을 위한 산업 R&D 혁신 3대 방향과 3대 기반 제시

- ① **지역** : 2조원 규모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R&D’ 추진, 30개 산연 공동연구실 구축
- ② **M.AX** : 500개 AI 팩토리 구축, 15개 제조 AI 선도모델 개발
- ③ **산업경쟁력 강화** : 수요앵커기업 주도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추진
- ④ **규제 완화** :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 도출·해소, ‘규제프리 R&D’ 신설
- ⑤ **혁신역량 강화** : 1조원 사업화 펀드 조성, 스타 엔지니어 육성 및 공학인의 날 제정
- ⑥ **가짜일 버리기** : 대형 과제수 30% 확대, 연구비 자체 정산·소액증빙 면제 확대

▶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산업 R&D 혁신방안」과 「26년 산업부 R&D 신규과제 추진(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28일(수) 16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 R&D 정책과 투자방향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산업부 장관 주재 산업 R&D 혁신 간담회 3회(25.9월 11월 12월), 차관 주재 산업기술 전략대화(25.11월), 산업기반실장 주재 R&D 전문가 간담회 3회(25.11~12월) 외 실무급 협의 30여회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과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①지역을 위한 R&D, ②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③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M.AX] Manufacturing AI X(Transformation) : 제조산업과 AI 융합

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개소를 구축한다.

둘째,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로 재편한다.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한다. 자율운항선박·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한다.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현장 실증(`26년 10개)을 지원하고,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

셋째, R&D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협력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26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7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④R&D를 위한 규제 완화, ⑤혁신역량 강화, ⑥가짜일 버리기를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약에 착수하여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하여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성장 쏠주기 관점(박사후 연구원-신진연구자-스타엔지니어)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공학인의 날’을 제정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를 `30년까지 30% 확대하고,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연구비 자체정산, 소액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을 통해 과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덜어내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신학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혁신과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치열한 기술투자·속도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히고, 기업 및 공학·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산업R&D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첨부] 「산업 R&D 혁신방안」

담당 부서 (총괄)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상미	044-203-4510
		담당자	사무관	한해원	044-203-4515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4513
기술금융· 사업화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동철	044-203-4530
		담당자	사무관	조은형	044-203-4531
규제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규제혁신과	책임자	과 장	유은	044-203-4540
		담당자	사무관	장재원	044-203-4546
지역 R&D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410
		담당자	사무관	이배화	044-203-4412
M. AX R&D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3-3830
		담당자	사무관	조은형	044-203-3832

